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329-2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2025 젠더인식조사]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 진단과 주체별 노력

2025. 05. 14.

담당자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팀장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1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위

**우리 사회는 '남성 살기 좋은 환경(35%)', '여성 살기 좋은 환경(29%)', '차이 없음(36%)'
여성보다는 남성 더 살기 좋은 환경이라는 인식 다소 우세하나, 성별 간 격차 감소 추세**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젠더'를 주제로 한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차 보고서는 ['우리 사회의 성 고정관념 인식과 소통 평가'](#)로, 성별 간 소통의 어려움이나 성 고정관념 문제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성별과 세대에 따른 인식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이어서 2차 보고서에서는 ['우리 사회 젠더갈등 심각성과 차별 경험'](#)에 관해 살펴보았다. 우리 사회는 젠더갈등이 심각하다는 인식이나, 해가 갈수록 완화되는 추세이다. 직장을 비롯해 가정이나 학교에서 성차별을 겪고 있으나, 이는 어느 한 쪽 성별만이 겪는 고충이 아니라 남녀 모두가 경험한 일이며 상대 성별에 대한 공감도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젠더인식조사의 마지막, 세 번째 장은 '양성평등'을 주제로 한다.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한 사회인지, 양성평등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주체별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인식을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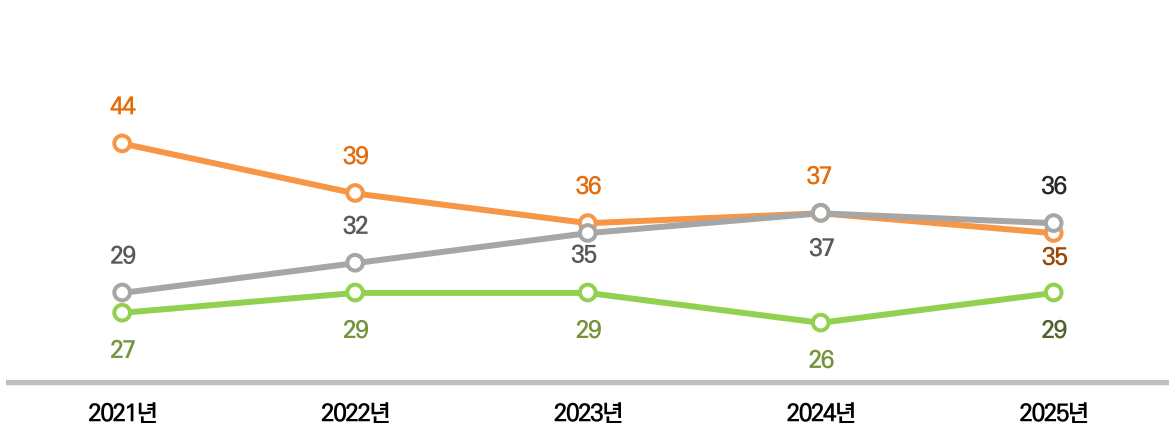
젠더갈등이 심각한 것은 맞지만 서로 이해의 감정을 공유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어느 성별이 살기에 좋은 환경인지 물었다. '성별 간 차이 없다'는 인식이 36%로, 2021년 첫 조사를 시작으로 점차 증가하는 모습이다. '남성이 살기 좋은 환경'이라는 인식은 35%로 '성별 간 차이 없다(36%)'와 비슷하고, '여성이 살기 좋은 환경(29%)'이라는 인식을 6%포인트 앞선다. 2021년 첫 조사에서 남성이 살기 좋은 환경 44%, 여성이 살기 좋은 환경 27%로 그 격차는 17%포인트였고, 이번 조사에서 6%포인트로 격차가 확연히 줄었다. 매년 남성이 여성보다 살기 좋은 환경이라는 인식이 앞서나, 그 격차는 점차 줄고 있는 추세다.

우리 사회는 성별에 따라 유불리? 그렇지 않아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살기 좋은 환경이라는 인식이 다소 우세하나, 성별 간 격차는 감소하는 추세

(단위 : %)

— 남성이 살기 좋은 환경 — 성별 간 차이 없다 — 여성이 살기 좋은 환경



질문: 우리 사회는 어떤 성별이 살기에 더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까?

비고: 살기 좋은 환경(훨씬 더 좋은 환경 + 더 좋은 환경) 응답 제시함.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1년부터 매년 2월 조사(총 5회)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여성 2명 중 1명, 우리 사회는 ‘남성이 살기 좋은 환경’
남성, ‘성별 간 차이 없다’ 혹은 ‘여성이 살기 좋은 환경’ 의견 엇갈려
2030세대 남성, 절반 이상이 ‘여성이 살기 좋은 환경’

우리 사회는 어느 특정 성별이 살기 좋은, 성별에 따른 유불리가 존재하는 사회는 아니라는 인식이다. 다만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는 존재한다. 여성 2명 중 1명은 ‘남성이 살기 좋은 환경(50%)’이라는 인식이다. 50대 이하 여성은 과반이 이에 동의하고, 특히 2030세대 여성은 10명 중 7명 이상 공감한다. 젊은 청년세대 여성일수록 여성보다는 남성이 살기 좋은 사회라는 인식이 확고하다. 반면 남성은 ‘성별 간 차이 없다(39%)’, ‘여성이 살기 좋은 환경(42%)’이라는 인식이 혼재한다. 다만 2030세대 남성 그리고 70세 이상 남성은 절반 이상이 ‘여성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라는 입장이다. 40대 이하, 70세 이상 남성은 여성이 살기 좋은 사회라는 인식이 지난 해보다 강화되었다.

정리하면 남녀 모두, 우리 사회는 본인 성별이 살기 좋은 환경이라는 응답이 20%도 채 되지 않는다. 본인 성별이 살기 좋다는 평가는 저조한 가운데 50대 이하 여성은 남성이, 2030세대 및 70세 이상 남성은 여성이 살기에 좋은 사회라는 인식이 과반이다.

본인 성별이 살기에 좋은 사회라는 평가 저조해
2030세대·70세 이상 남성, ‘여성이 살기 좋은 환경’ 작년 대비 10%포인트 이상 증가

(단위 : %, %p)

		남성이 살기 좋은 환경			성별 간 차이 없다			여성이 살기 좋은 환경		
		2024년	2025년	차이 (’25년-’24년)	2024년	2025년	차이 (’25년-’24년)	2024년	2025년	차이 (’25년-’24년)
전체		37	35	-2	37	36	-1	26	29	+3
성별	남자	24	19	-5	41	39	-2	34	42	+8
	여자	50	50	0	34	34	0	17	16	-1
연령	18-29세	49	42	-7	29	28	-1	22	30	+8
	30대	40	41	+1	34	28	-6	26	31	+5
	40대	46	37	-9	35	39	+4	19	25	+6
	50대	34	42	+8	42	36	-6	24	22	-2
	60대	28	28	0	39	37	-2	33	34	+1
	70세 이상	25	16	-9	45	48	+3	30	36	+6
성별x연령										
남자_18-29세		26	10	-16	36	39	+3	38	51	+13
여자_18-29세		75	76	+1	21	17	-4	3	7	+4
남자_30대		19	15	-4	40	34	-6	41	51	+10
여자_30대		63	69	+6	27	22	-5	10	9	-1
남자_40대		30	19	-11	39	40	+1	31	41	+10
여자_40대		62	55	-7	31	37	+6	7	8	+1
남자_50대		22	33	+11	46	39	-7	31	28	-3
여자_50대		45	52	+7	38	33	-5	17	15	-2
남자_60대		27	24	-3	39	40	+1	33	36	+3
여자_60대		28	33	+5	38	35	-3	33	32	-1
남자_70세 이상		22	9	-13	46	38	-8	32	53	+21
여자_70세 이상		28	21	-7	43	55	+12	29	24	-5

질문: 우리 사회는 어떤 성별이 살기에 더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비고: 살기 좋은 환경(훨씬 더 좋은 환경 + 더 좋은 환경) 응답 제시함.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4. 2. 2. ~ 5. // 2025. 2. 21. ~ 2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남녀 모두 사회적 약자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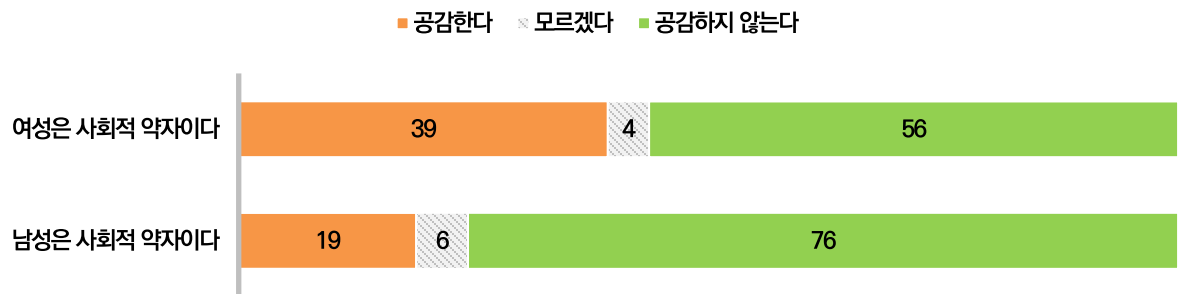
다만, 남성(19%)보다 여성(39%)을 더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고 있어

직장이나 가정에서 남녀가 겪는 각자의 고충이 존재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는 특정 성별에게만 유불리가 존재하는 사회가 아니라는 인식이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도 모두 사회적 약자는 아니라는 인식이다. 남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데 76%가 공감하지 않았고,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질문에도 56%가 동의하지 않는다. 대다수가 남녀 모두 사회적 약자는 아니라는 인식이다.

우리 사회는 특정 성별에게만 유리한 환경이 아니라는 인식이나, 남녀만 비교하면 남성이 살기 더 좋은 사회라는 인식이 여성을 소폭 앞선다. 남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데 19%만이 공감하는 가운데,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데 39%가 동의한다. 대다수가 남녀 모두 사회적 약자는 아니나, 여성을 조금 더 약자로 인식하는 것이다.

남녀 모두 사회적 약자 ‘아니다’ 과반 남녀를 비교하자면,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고 있어

(단위 : %)



질문: ‘우리 사회에서 남성(여성)은 사회적 약자이다’라는 주장에 어떤 의견이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2. 21. ~ 2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여성, 스스로를 ‘사회적 약자’로 인식해

남성, 남녀 모두 사회적 약자 ‘아니다’

전체 응답 기준으로 보면 남녀 모두 우리 사회에서 약자가 아니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여성 중 52%는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데 공감한다. 50대 이하 여성 중에서는 다수가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더 많은 수가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인식한다. 반면 남성은 여성(69%)도, 본인이 속한 남성(66%)도 모두 약자가 아니라는 인식이 60%를 상회한다. 모든 세대에서 남성은 동년배 여성보다 남성 본인의 성별을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고 있고 특히 40대 이하 남성 3명 중 1명은 남성을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성별 및 세대를 불문하고 남성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는 입장에 무게가 실린다.

여성 2명 중 1명은 ‘여성은 사회적 약자’ 공감, 18-29세 여성은 74%가 공감
남성, 남녀 모두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는 인식에 무게 실리지만,
40대 이하 남성 3명 중 1명 정도는 ‘남성은 사회적 약자’ 라는데 동의해

(단위 : %)

		사례수(명)	여성은 사회적 약자이다		남성은 사회적 약자이다	
			공감한다 (매우+공감)	공감하지 않는다 (매우+공감하지 않음)	공감한다 (매우+공감)	공감하지 않는다 (매우+공감하지 않음)
전체		(1,000)	39	56	19	76
성별	남자	(493)	26	69	27	66
	여자	(507)	52	44	11	85
연령	18-29세	(155)	41	49	19	67
	30대	(149)	45	51	29	67
	40대	(175)	37	58	22	72
	50대	(195)	44	53	14	82
	60대	(177)	36	62	16	81
	70세 이상	(149)	33	66	16	83
	성별x연령					
	남자_18-29세	(81)	12	73	33	46
	여자_18-29세	(74)	74	22	3	90
	남자_30대	(77)	27	68	42	52
	여자_30대	(72)	64	33	15	82
	남자_40대	(88)	24	74	35	61
	여자_40대	(87)	50	42	8	84
	남자_50대	(98)	31	66	20	75
	여자_50대	(97)	57	40	8	89
	남자_60대	(87)	36	62	16	82
	여자_60대	(90)	35	61	17	79
	남자_70세 이상	(62)	25	74	20	79
	여자_70세 이상	(87)	38	60	13	85

질문: ‘우리 사회에서 남성/여성은 사회적 약자이다’라는 주장에 어떤 의견이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2. 21. ~ 2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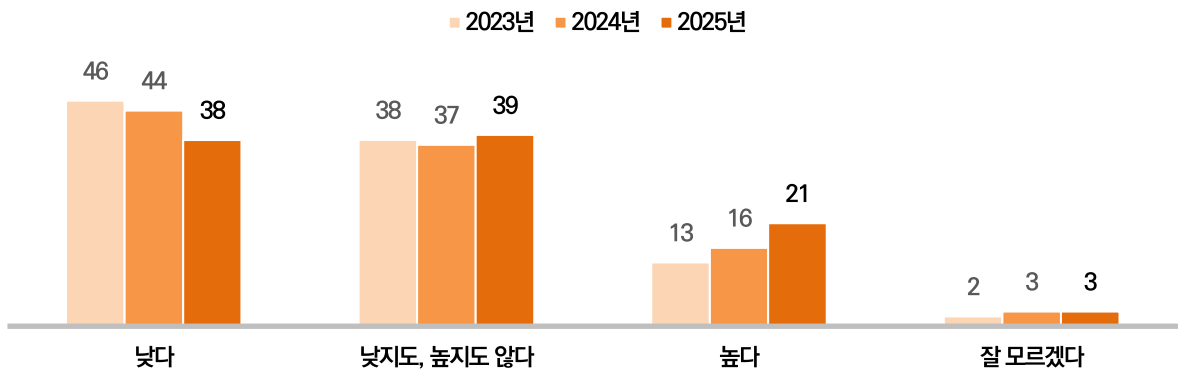
2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 진단

작년에 이어 양성평등 수준, 중간 이하 양성평등 수준 높다, 21%로 매년 소폭 증가

앞서 우리 사회는 성별에 따른 유불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이나, 성별 및 세대에 따른 인식 차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 전체 응답자 중 38%는 우리 사회 양성평등 수준을 ‘낮게’ 평가한다. ‘낮지도, 높지도 않다(39%)’는 응답을 더하면, 대다수인 77%가 우리 사회 양성평등을 중간 이하로 평가한다. 1년 전에 이어 양성평등 수준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모습이다(중간 이하 응답, 2024년 81%→2025년 77%).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양성평등 수준이 낮다는 인식은 조사 이래 점진적으로 감소한다. 반대로 양성평등 수준이 높다는 인식은 올해 21%로 전체 응답자 5명 중 1명 뿐이나,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우리 사회 ‘양성평등 수준’ 중간 이하(77%)… ‘낮다’ 38%, ‘낮지도, 높지도 않다’ 39%
양성평등 수준 ‘높다’ 21%, 매년 소폭 증가

(단위 : %)



질문: 현재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낮다(매우+대체로), 높다(매우+대체로) 응답 제시함.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3. 2. 24. ~ 27. // 2024. 2. 2. ~ 5. // 2025. 2. 21. ~ 2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030세대, 절반 이상이 우리 사회 양성평등 수준 낮아 2030세대 여성 10명 중 6명 가량, 부정 평가

응답자 10명 중 7~8명이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을 중간 이하로 평가하는 가운데, 2030세대는 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18~29세는 54%, 30대 50%는 양성평등 수준이 낮다는 인식이다. [우리 사회 젠더갈등이 심각한 문제이고, 앞으로도 갈등이 심화될 것을 특히 우려하는 청년세대](#)에서 양성평등 수준에 관한 인식도 부정적이다. 성별과 세대를 교차해서 살펴보면 2030세대 여성의 과반이 양성평등 수준을 낮게 평가한다. 동년배 남성 중 양성평등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40% 초중반 정도이다. 남성도 전반적으로 양성평등 수준을 중간 이하로 평가하나, 수준이 높다는 평가가 여성의 두 배 이다(여성 14%, 남성 28%). 40대 이상은 양성평등 수준을 중간 정도로 평가하는 가운데, 40대 남성은 작년보다 양성평등 수준이 높다는 인식이 18%포인트 증가했다. 50대와 70세 이상 여성은 양성평등 수준이 낮다는 비율이 10%포인트 이상 감소했다.

2·30대, 우리 사회 양성평등 수준 '낮다' 절반 이상… 특히 여성은 2년 연속 절반 이상이 '낮다' 평가
40대 이상은 '낮지도, 높지도 않다'는 평가 다수

(단위 : %, %p)

		양성평등 수준 낮다			낮지도, 높지도 않다			높다		
		2024년	2025년	차이 (25년-'24년)	2024년	2025년	차이 (25년-'24년)	2024년	2025년	차이 (25년-'24년)
전체		44	38	-6	37	39	+2	16	21	+5
성별										
	남자	40	34	-6	35	36	+1	22	28	+6
	여자	48	41	-7	38	42	+4	11	14	+3
연령										
	18-29세	61	54	-7	25	25	0	13	16	+3
	30대	49	50	+1	35	32	-3	12	17	+5
	40대	42	33	-9	42	44	+2	12	20	+8
	50대	41	31	-10	36	46	+10	20	21	+1
	60대	37	31	-6	38	41	+3	23	26	+3
	70세 이상	37	29	-8	45	45	0	17	24	+7
성별x연령										
	남자_18-29세	52	45	-7	25	21	-4	22	26	+4
	여자_18-29세	71	64	-7	24	29	+5	3	6	+3
	남자_30대	38	42	+4	40	32	-8	19	25	+6
	여자_30대	60	59	-1	30	31	+1	5	8	+3
	남자_40대	44	29	-15	38	40	+2	14	32	+18
	여자_40대	39	38	-1	47	49	+2	10	8	-2
	남자_50대	35	28	-7	35	43	+8	26	27	+1
	여자_50대	46	35	-11	37	49	+12	14	15	+1
	남자_60대	38	30	-8	34	41	+7	27	27	0
	여자_60대	37	33	-4	41	40	-1	18	25	+7
	남자_70세 이상	31	31	0	42	36	-6	25	32	+7
	여자_70세 이상	41	28	-13	47	51	+4	11	19	+8

질문: 현재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낮다(매우+대체로), 높다(매우+대체로) 응답 제시함. 모름 응답 제외함.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4. 2. 2. ~ 5. // 2025. 2. 21. ~ 2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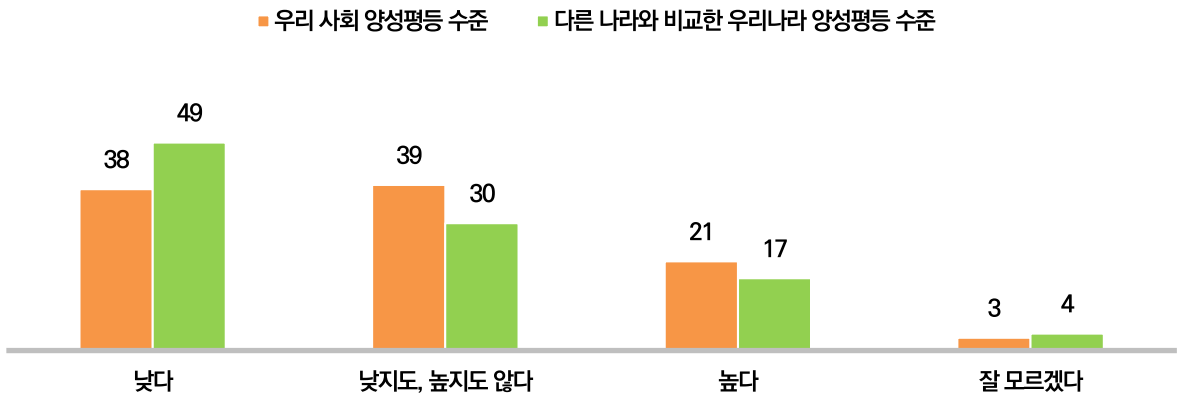
2명 중 1명(49%), 우리 사회 양성평등 수준은 다른 나라보다 ‘낮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 사회 양성평등 수준은 중간 이하(79%)

우리 사회만 두고 평가한 양성평등 절대수준은 작년에 이어 중간 이하이고, 다른 나라와 비교한 상대수준 역시 비관적이다. 응답자 중 절반은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좋지 않다고 답했다(49%). ‘낮지도, 높지도 않다(30%)’는 인식을 합하면 대다수인 79%가 중간 이하로 평가한다. 다른 나라보다 수준이 높다는 인식은 17%로 낮은 편이다.

여성(55%)과 40대 이하 세대에서는 과반이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을 다른 나라보다 낮게 평가한다. 40대 이하 세대에서 남녀 모두 다른 나라보다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가운데, 남성보다 여성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한편, 2030세대 남성 내에서 인식 변화가 나타난다. 18~29세 남성은 작년 대비 부정 평가 비율이 10%포인트 감소한 반면, 30대 남성은 18%포인트 증가해 상반된 흐름을 보인다.

2명 중 1명(49%), 우리 사회 양성평등 수준은 다른 나라보다 ‘낮다’ 다른 나라보다 수준 높다는 인식은 17%에 그쳐

(단위 : %)



질문: 현재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교: 낮다(매우+대체로), 높다(매우+대체로) 응답 제한함.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2. 21. ~ 2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여성과 40대 이하, 절반 이상이 다른 나라 대비 우리 사회 양성평등 수준 ‘부정 평가’

(단위 : %, %p)

	양성평등 수준 낮다			낮지도, 높지도 않다			높다		
	2024년	2025년	차이 (25년-'24년)	2024년	2025년	차이 (25년-'24년)	2024년	2025년	차이 (25년-'24년)
전체	49	49	-	31	30	-1	17	17	-
성별									
남자	41	44	+3	32	31	-1	24	22	-2
여자	57	55	-2	30	29	-1	10	13	+3
연령									
18~29세	62	59	-3	21	22	+1	15	16	+1
30대	52	62	+10	29	20	-9	14	16	+2
40대	50	53	+3	33	29	-4	14	15	+1
50대	49	47	-2	30	31	+1	18	19	+1
60대	40	41	+1	38	36	-2	19	19	0
70세 이상	40	34	-6	37	42	+5	19	17	-2
성별x연령									
남자_18~29세	51	41	-10	21	29	+8	27	27	0
여자_18~29세	74	79	+5	21	14	-7	3	4	+1
남자_30대	36	54	+18	36	24	-12	22	18	-4
여자_30대	69	71	+2	21	15	-6	6	14	+8
남자_40대	43	47	+4	31	29	-2	22	22	0
여자_40대	57	59	+2	34	29	-5	6	8	+2
남자_50대	37	39	+2	33	35	+2	24	23	-1
여자_50대	61	56	-5	27	26	-1	12	16	+4
남자_60대	43	44	+1	35	33	-2	22	20	-2
여자_60대	37	37	0	41	38	-3	16	18	+2
남자_70세 이상	31	35	+4	39	38	-1	25	20	-5
여자_70세 이상	47	34	-13	35	45	+10	16	15	-1

질문: 현재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낮다(매우+대체로), 높다(매우+대체로) 응답 제시함. 모름 응답 제외함.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4. 2. 2. ~ 5. // 2025. 2. 21. ~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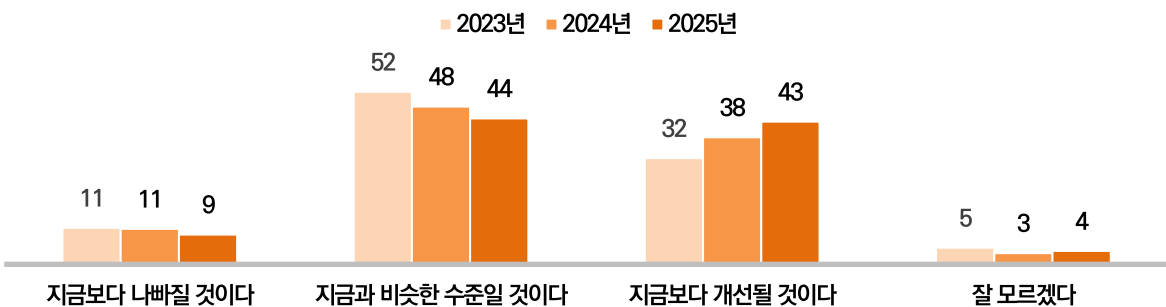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on.co.kr)

향후 양성평등 수준은 지금과 비슷하거나 악화될 것, 53% 지금보다 개선될 것이다, 긍정적인 기대감은 43%로 점진적인 상승세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을 작년에 이어 중간 이하로 평가한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향후 양성평등 수준에 관한 전망 역시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44%,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다' 9%로 과반이 현 수준에 머물거나 악화될 것이라는 인식이다. 전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양성평등의 실질적인 개선 가능성에 회의적이다(53%, 나빠질 것 9%+비슷한 수준일 것 44%). 다만, '지금보다 개선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43%로 절반에는 못 미치지만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양성평등 수준은 지금과 비슷하거나 나빠질 것, 53%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 43%로 점진적인 상승세

(단위 : %)



질문: 앞으로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3. 2. 24. ~ 27. // 2024. 2. 2. ~ 5. // 2025. 2. 21. ~ 2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10명 중 4명 이상, 우리 사회 양성평등 수준은 '정체' 혹은 '악화' 전망 2030세대, 양성평등 '정체' 혹은 '악화' 전망하고 남녀 간 인식 차이 있어

현재 우리 사회 양성평등은 보통 수준이고, 앞으로도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20%로 가장 많다. 현재 양성평등 수준이 낮고, 앞으로도 비슷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15%), 현재 낮은 수준인 양성평등 수준이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8%), 현재 양성평등 수준 보통이고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1%)를 모두 합하면, 44%가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이 보통 이하이고 향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크지 않다는 인식이다.

물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현재 양성평등 수준은 보통이지만 앞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보는 사람은 17%이다. 현재 양성평등 수준 낮지만 앞으로 나아질 것으로 보는 사람(14%)을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의 31%가 현재 양성평등 수준은 중간 이하이지만 향후에는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현재 높은 양성평등 수준을 앞으로도 유지하거나(8%),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는(12%) 낙관층은 전체의 20%이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양성평등이 정체되거나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정체 전망'에 대해서는 세대 내 남녀 간 인식 차이가 두드러진다. 2040세대 여성의 20~40% 가량은 현재 양성평등 수준이 낮고 향후에도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반면, 동세대 남성은 이에 동의하는 비율이 여성보다 10%포인트 이상 낮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중간 이하의 양성평등 수준이 향후에는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이 크다. 4050세대 여성은 동세대 남성에게 비해 현재 중간 수준의 양성평등이 향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다. 같은 여성 집단 내에서도 2030세대는 비관적인 인식인 반면, 50대 중년층은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10명 중 4명, 우리 사회 양성평등 수준은 '정체' 혹은 '악화' 전망

(단위 : %)

		향후 양성평등 수준 전망			모르겠다
		지금보다 나빠질 것	지금과 비슷한 수준일 것	지금보다 개선될 것	
현재 양성평등 수준 평가	낮다	부정 & 악화 8	부정 & 유지 15	부정 & 개선 14	모름 5
	낮지도, 높지도 않다	보통 & 악화 1	보통 & 유지 20	보통 & 개선 17	
	높다	긍정 & 악화 1	긍정 & 유지 8	긍정 & 개선 12	
	모르겠다				

긍정적 수준 유지 혹은 더욱 개선: 20%

보통 이하이나, 향후 전망 긍정적: 31%

보통 이하 유지 혹은 향후 전망 부정적: 44%

2030세대, 양성평등 '정체' 혹은 '악화' 전망 높고 남녀 간 인식 차이 있어

연령대 높을수록 '상향' 혹은 '개선' 전망과 같이 긍정적인 변화 기대해

		사례수 (명)	보통 & 유지	보통 & 개선	부정 & 유지	부정 & 개선	긍정 & 개선	긍정 & 유지	부정 & 악화
전체		(1,000)	20	17	15	14	12	8	8
성별									
	남성	(493)	19	13	11	13	15	12	9
	여성	(507)	21	20	20	15	9	4	7
연령									
	18-29세	(155)	14	9	22	9	10	7	22
	30대	(149)	18	11	28	7	8	8	15
	40대	(175)	26	15	15	12	9	10	5
	50대	(195)	23	21	12	16	12	7	3
	60대	(177)	21	17	9	20	17	8	3
	70세 이상	(149)	18	26	7	20	16	7	1
성별x연령									
	남성_18-29세	(81)	11	6	14	10	15	12	20
	여성_18-29세	(74)	17	11	31	8	4	1	24
	남성_30대	(77)	19	10	19	3	10	12	20
	여성_30대	(72)	17	12	38	11	6	3	10
	남성_40대	(88)	24	8	10	10	13	16	8
	여성_40대	(87)	27	21	20	14	4	3	1
	남성_50대	(98)	24	16	10	14	14	11	3
	여성_50대	(97)	21	26	14	17	11	4	3
	남성_60대	(87)	21	18	8	20	17	9	1
	여성_60대	(90)	21	16	10	19	18	6	4
	남성_70세 이상	(62)	15	21	3	25	21	9	0
	여성_70세 이상	(87)	21	30	10	16	11	5	2

질문: 현재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앞으로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비고: 상위 7순위 집단까지 제시함.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2. 21. ~ 24.

3 양성평등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주체별 노력

2021년부터 5년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은 주로 본인과 가정 '사적 영역'에 집중 국회의 노력 평가, 5년간 최하위권 유지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을 중간 이하로 평가하고, 향후 전망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의 여러 영역과 주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2021년을 시작으로 지난 5년간 개인을 포함해 가정, 직장, 교육기관, 정부(행정부), 언론, 지방자치단체, 법원, 국회(입법부)까지 총 9개 주체가 양성평등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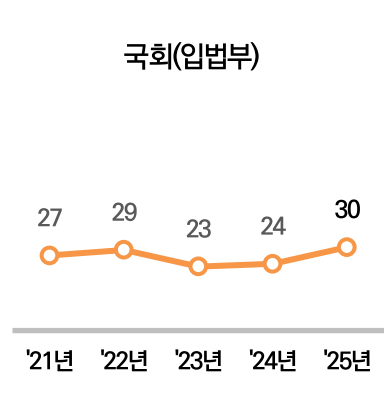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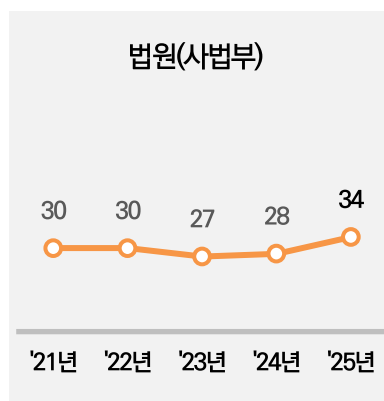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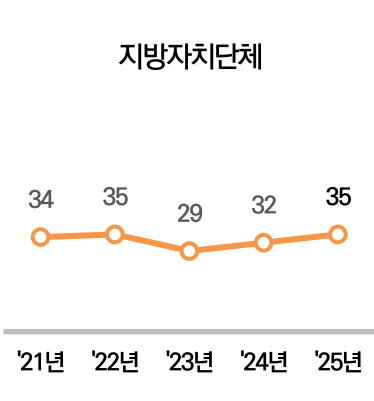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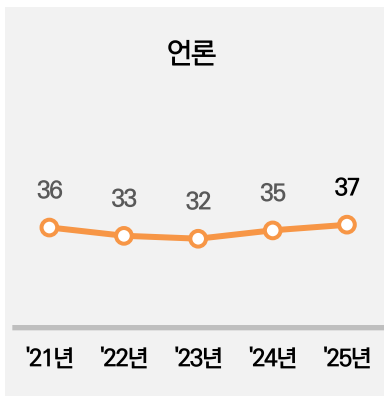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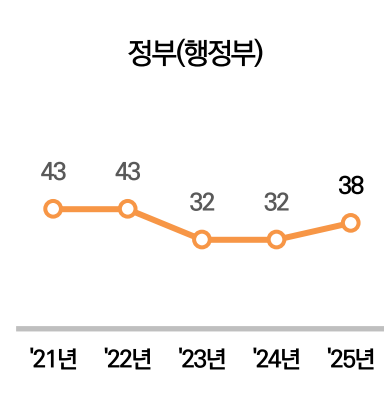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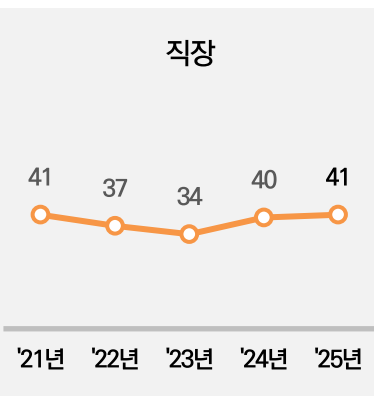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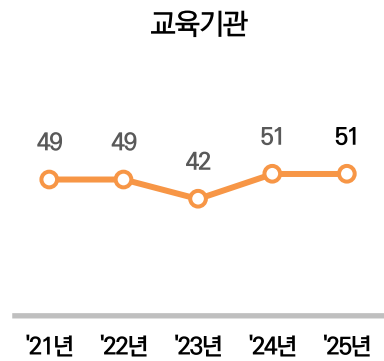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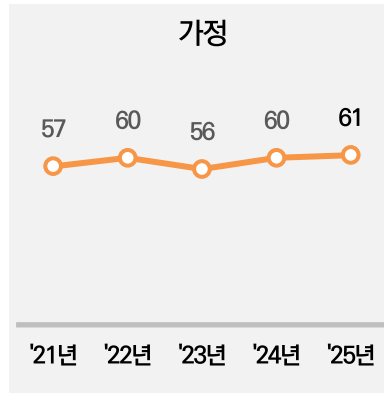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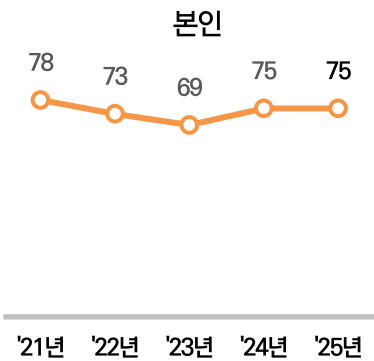
이번 조사에서 '본인(75%)'과 '가정(61%)'은 양성평등을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주체라는 인식이다. 이번 조사를 포함해 5년간 개인, 사적 영역에서의 노력은 꾸준히 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기관(51%)'과 '직장(41%)'의 노력은 사적 영역의 뒤를 잇고 있으며, 2023년을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다. '정부(행정부)(38%)'와 '언론(37%)', '지방자치단체(35%)', '법원(사법부)(34%)', '국회(입법부)(30%)'도 2023년 기점으로 천천히 증가하고 있으나 30%대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국회는 5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여성가족부가 2023년 3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한 이후, 양성평등 정책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각 주체별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다. 정책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환경 변화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 기본계획 발표 이후 주체별 긍정 평가가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인다.

지난 5년간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한 영역 및 주체별 노력 인식을 살펴보면, 개인·가정과 같이 사적 단위의 책임 의식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공적 영역의 노력은 미흡하다는 평가이다. 특히 입법·사법기관에 대한 낮은 평가는 정책 변화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절반 이상이 우리 사회 양성평등 수준을 중간 이하로 평가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응답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공공 부문의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부터 5년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은 주로 본인과 가정 등 '사적 영역'에 집중 국회의 노력 평가, 5년간 최하위권 유지

(단위 : %)

...이/가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한다



질문: 다음 각각의 영역/주체가 양성평등을 위해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노력한다(매우+하는 편)' 응답 제외함.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1년부터 매년 2월 조사(총 5회)

4 양성평등 정책 인지도와 최우선 정책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57%는 ‘모르고 있었다’

성별, 세대 불문하고 양성평등 정책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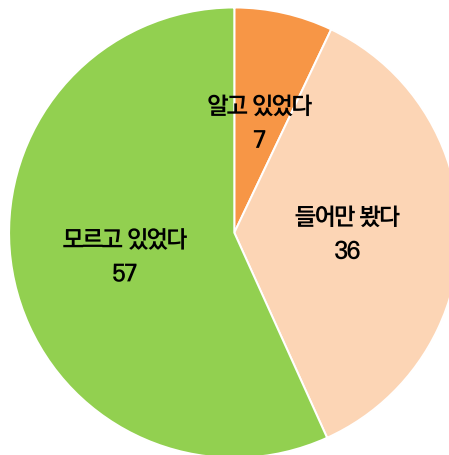
젠더갈등, 양성평등 수준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2030세대에서 정책 인지도 가장 낮아

여성가족부는 2023년 3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다섯가지의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①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②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③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④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⑤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5년마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2023년에 3차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해당 정책에 관해 ‘알고 있는’ 사람은 7%뿐이다. ‘들어만 봤다’는 36%, 57%의 대다수가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다.

성별, 세대를 불문하고 관련 정책에 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정책 인지도가 낮다. 2030세대는 63% 이상이 관련 정책을 모른다고 답했다. 앞서 우리 사회의 젠더갈등이 심각하고, 양성평등 수준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2030세대에서 관련 정책에 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모르고 있었다’ 57%
알고 있는 사람은 7%로 매우 적어

(단위 : %)



질문: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5년마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제3차 기본계획(2023~2027)이 발표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2. 21. ~ 2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성별, 세대 불문하고 양성평등 정책 ‘모른다’
50대 이하에서 과반이 정책 잘 몰라, 특히 2030세대에서 인지도 가장 낮아

(단위 : %)

		사례수(명)	알고 있었다	들어만 봤다	모르고 있었다
전체		(1,000)	7	36	57
성별	남자	(493)	8	37	55
	여자	(507)	6	36	58
연령	18-29세	(155)	11	26	63
	30대	(149)	6	28	66
	40대	(175)	8	27	65
	50대	(195)	4	43	54
	60대	(177)	8	43	49
	70세 이상	(149)	7	48	45
성별x연령					
남자_18-29세		(81)	11	22	67
여자_18-29세		(74)	11	31	58
남자_30대		(77)	8	26	66
여자_30대		(72)	3	31	67
남자_40대		(88)	12	29	59
여자_40대		(87)	4	25	71
남자_50대		(98)	5	51	44
여자_50대		(97)	2	35	63
남자_60대		(87)	7	42	51
여자_60대		(90)	8	44	47
남자_70세 이상		(62)	4	50	46
여자_70세 이상		(87)	9	47	44

질문: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5년마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제3차 기본계획(2023~2027)이 발표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2. 21. ~ 2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문화 확산 등은 후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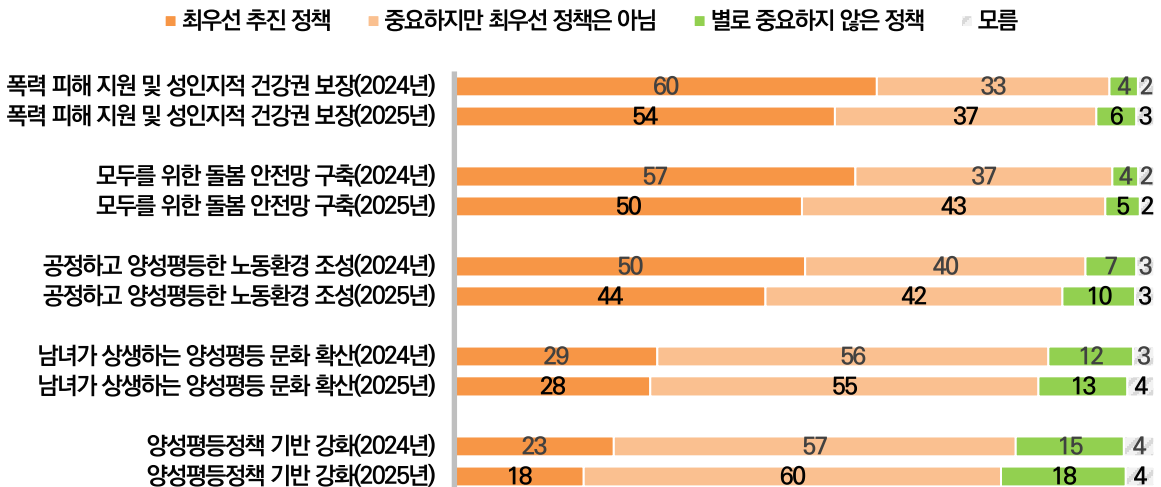
사람들은 다섯 가지 정책 과제 모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 가운데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54%로 가장 높고 이어서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50%)’도 절반이 최우선 과제로 꼽는다. 다음으로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44%)’이 뒤를 잇고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28%)’,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18%)’는 상대적으로 후순위이다. 양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노동 환경 개선이나 문화 확산과 같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실제 피해를 지원하고 아동과 성인·돌봄 노동자 모두를 포괄하는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인식이다.

다만 작년 대비 각 정책별로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소폭 감소했다.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은 6%포인트(2024년 60%→2025년 54%),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7%포인트(2024년 57%→2025년 50%),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은 6%포인트(2024년 50%→2025년 44%) 감소했으나 폭력 피해와 돌봄 안정망에 대한 중요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앞서 관련 정책을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이나,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를 원하는 정책은 명확하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파악해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홍보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작년에 이어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도 우선으로 추진해야

(단위 : %)



질문: 다음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4. 2. 23. ~ 26. // 2025. 2. 21. ~ 2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여성은 남성 대비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최우선 남녀 모두 절반 가량이 ‘돌봄 안전망 구축’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

여성은 남성보다 ‘피해 지원’과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인식한다. 특히 50대 이하 여성은 동년배 남성에 비해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공감하는 비율 절반 이상 높게 나타난다. 60대 이상에서는 성별 간 차이 없이 과반이 중요성에 공감한다. 남녀 모두 ‘돌봄 안전망 구축’을 공통적인 최우선 과제로 인식한다.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정책 기반 강화’는 후순위 정책이기는 하나 2030세대 여성에서 동년배 남성 대비 시급한 정책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 다만, 전체적으로 ‘최우선 추진’ 응답은 작년보다 감소했고, 특히 20대와 50대에서 감소 폭이 크다.

양성평등 정책별 시급성 인식은 성별과 세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앞서 50대 이하 여성은 우리 사회를 ‘남성이 살기 좋은 사회’, ‘여성은 사회적 약자’, ‘양성평등 수준이 낮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러한 인식은 이들이 구조적 불평등과 실질적인 피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50대 이하 여성은 ‘피해 지원’과 ‘노동환경 개선’을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과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돌봄 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성별을 넘어서 공동의 사회적 요구가 존재한다. 또한 2030세대 여성은 문화 확산이나 제도 기반 강화와 같은 비교적 후순위 정책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피해 지원과 문화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성은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을 최우선 추진 정책으로 꼽아
남녀 모두 절반이 ‘돌봄 안전망 구축’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

(단위 : %, %p)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2024년	2025년	차이 (25년-24년)	2024년	2025년	차이 (25년-24년)	2024년	2025년	차이 (25년-24년)
전체	60	54	-6	57	50	-7	50	44	-6
성별									
남자	49	43	-6	58	48	-10	42	34	-8
여자	71	65	-6	56	51	-5	58	54	-4
연령									
18-29세	64	54	-10	57	35	-22	58	42	-16
30대	56	49	-7	57	52	-5	48	50	+2
40대	61	53	-8	57	53	-4	46	40	-6
50대	61	51	-10	60	48	-12	56	42	-14
60대	58	60	+2	54	61	+7	47	50	+3
70세 이상	63	60	-3	58	48	-10	44	43	-1
성별x연령									
남자_18-29세	44	31	-13	62	41	-21	38	28	-10
여자_18-29세	85	79	-6	52	29	-23	81	59	-22
남자_30대	37	37	0	64	47	-17	37	35	-2
여자_30대	77	61	-16	50	57	+7	60	67	+7
남자_40대	50	42	-8	50	50	0	40	28	-12
여자_40대	72	64	-8	65	56	-9	52	51	-1
남자_50대	50	36	-14	58	47	-11	44	28	-16
여자_50대	72	66	-6	62	48	-14	67	57	-10
남자_60대	60	59	-1	56	58	+2	48	50	+2
여자_60대	56	61	+5	51	64	+13	47	50	+3
남자_70세 이상	58	56	-2	61	45	-16	42	40	-2
여자_70세 이상	66	62	-4	56	50	-6	45	44	-1

질문: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음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비고: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 응답 제시함.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4. 2. 23. ~ 26. // 2025. 2. 21. ~ 24.

2030세대 여성,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관련 정책 기반 강화’에 관해 동년배 남성 대비 시급한 문제로 인식

(단위 : %, %p)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2024년	2025년	차이 (25년-24년)	2024년	2025년	차이 (25년-24년)
전체	29	28	-1	23	18	-5
성별						
남자	26	24	-2	21	17	-4
여자	32	32	-	24	20	-4
연령						
18-29세	31	24	-7	25	14	-11
30대	20	28	+8	16	17	+1
40대	28	25	-3	22	17	-5
50대	36	33	-3	25	22	-3
60대	27	29	+2	24	23	-1
70세 이상	29	27	-2	25	16	-9
성별×연령						
남자_18-29세	23	18	-5	17	7	-10
여자_18-29세	41	30	-11	33	22	-11
남자_30대	22	19	-3	14	14	-
여자_30대	18	38	+20	17	21	+4
남자_40대	26	22	-4	23	14	-9
여자_40대	31	28	-3	22	19	-3
남자_50대	29	29	-	21	21	-
여자_50대	43	37	-6	28	22	-6
남자_60대	27	29	+2	27	26	-1
여자_60대	27	30	+3	20	21	+1
남자_70세 이상	27	27	-	26	17	-9
여자_70세 이상	31	28	-3	24	16	-8

질문: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음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비고: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 응답 제시함.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4. 2. 23. ~ 2. 26. // 2025. 2. 21. ~ 2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조사 결과,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과 향후 전망에 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다. 특히 2030세대에서 비관적 인식이 가장 두드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인지도는 전 세대를 통틀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간극은 양성평등 정책이 존재함에도 실질적인 체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시급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소통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현재 양성평등 실현에 대한 기대와 책임은 ‘본인’과 ‘가정’ 같은 사적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정부·지자체·입법·사법기관 등 공적 주체에 대한 기대와 평가는 여전히 낮다. 공공 부문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관련 정책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체계적인 홍보와 실행이 병행되어야 한다. 양성평등은 공동의 과제인 만큼, 사회 전반의 균형 잡힌 책임 인식과 실천이 동반될 때 비로소 빛을 발할 것이다.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4년 12월 기준 전국 약 96만 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기준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4년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41,977명, 조사참여 1,519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2.4%, 참여대비 65.8%)
조사일시	• 2025년 2월 21일 ~ 2월 24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Research

